

세계사의 미로를 헤쳐나오는 '아리아드네의 실'

미야자키 마사카츠의 《하룻밤에 읽는 세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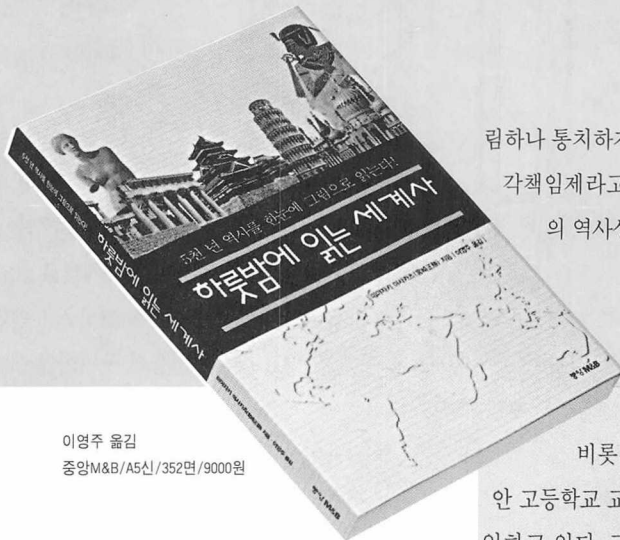
“역사는 미래와의 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역전 마라톤에 참가한 선수처럼 ‘이전세대’로부터 baton을 넘겨받아 ‘일상생활’이라는 현실을 살다가 ‘다음세대’에게 넘겨줍니다. 언뜻 보기에는 단조로워 보일지도 모르지만 인류의 역사가 응축된 우리의 ‘일상생활’은 사실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란 꼭 찬동조림과도 같아서 일정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으며 ‘미래’에의 열쇠도 그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의미를 설명한 이 짙막한 글귀는 《하룻밤에 읽는 세계사》(미야자키 마사카츠, 이영주, 중앙M&B)라는 책의 머리말에 나온다. 이 글귀가 인상적인 것은, 웬만한 역사책에는 나오지 않는 낯익은 말인데도, 그 표현방식이 새롭고 세련된 탓이다. 역사를 ‘역전 마라톤’에 빗댄 것이 그렇고, 인류사를 ‘꼭 찬 동조림’이라는, 조금은 생경한 비유를 든 것도 예사롭지 않다.

낯익은 것을 낯설게 만들어 새로운 미적 즐거움을 주는 것이 이른바 ‘낯설게 하기 기법’ 일텐데, 이같은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해 읽는 이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 책의 지은이는 흔치 않은 재주가 있는 것 같다. ‘흥미롭고 간결하면서도 알기 쉬운’ 책을 써냈으니 말이다.

그림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비록 호사가적 수준이지만 세계사 책을 읽을 때마다 부딪치는 문제가 있다. 양(洋)의 동서와 시대의 고금을 오르내리다 보면, 어느 순간 역사적 문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세계사라는 광활한 대륙의 ‘미아’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사 읽기는, 비유하자면 미노스가 미노타우로스를 감금하기 위해 지었다는 미궁 ‘라비린토스’ 같다. 만수완창 토크쇼처럼 얼기설



이영주 옮김
중앙M&B/A5신/352면/9000원

기 얽혀 있는 사건을 좇다보면 어느새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미궁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세계사가 미궁이라면, 읽는이에게 필요한 것은 ‘아리아드네의 실’이다. 《하룻밤에 읽는 세계사》는 세계사라는 미로에 빠진 독자들에게 온 길과 갈 길을 비춰주는 ‘손전등’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352쪽에 불과한 책이 이같은 ‘중책’을 떠맡을 수 있는 것은, 책의 부제가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듯, 5천년 역사를 한눈에, 그림으로 읽을 수 있도록 배려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세계사의 흐름을 훑어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가려 뽑아 두쪽 단위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지도와 도표, 그리고 흐름도를 덧붙였다. 바로 이 장치가 복잡다단한 세계사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의 또다른 장점은 재미있다는 점이다. 5천년에 이르는 인류사를 압축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아무래도 소소한 것은 놓치게 마련인데, 지은이는 곳곳에 비사(秘史)를 ‘지뢰’처럼 숨겨놓아 읽는이들을 즐겁게 한다. “1714년에 왕조가 단절되자 먼 친척뻘되는 조지 1세를 독일에서 데려왔으나 50세가 넘은 조지 1세는 영어를 알아듣지 못해 각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대신 중 하나가 내 각총리대신이 돼 왕의 집무를 대행했다. 왕은 군

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제도를 내 각책임제라고 한다” 같은 ‘믿거나 말거나’ 류의 역사상식이 적절하게 ‘매설’돼 있다.

지은이 특유의 입담 돋보여

앞에서 언급한 이 책의 장점은 지은이 특유의 이력에서 비롯된 것 같다. 지은이는 여러 해 동안 고등학교 교사를 지냈고, 지금은 대학교수로 일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경력은 다른 데 있다. 지은이는 10년 넘게 ‘NHK 고교강좌’의 세계사 전임강사였고, 20년 남짓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를 집필했다. 이 책을 읽다보면 어딘가 꽤 입담 좋은 인기 학원강사의 강의가 연상되곤 하는데, 아무래도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듯하다.

그렇다고 이 책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아무리 기를 써도 이 책을 하룻밤에 다 읽을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점을 표나게 강조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입시를 앞둔 수험생도 아닌 마당에 굳이 세계사를 하룻밤에 읽을 필요는 없을 테니 말이다. 그리고 서양학자가 쓴 책들과는 달리 아시아의 역사가 제법 무게 있게 다뤄졌지만, 상대적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언급이 적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더불어 그림이 주를 이루다보니 아무래도 역사자체를 너무 기계적이고 단선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폐단을 빼 놓을 수 없다.

이런 저런 단점에도 이 책이 세계사 학습의 미더운 길잡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만약 누군가가 이 책의 가치를 폄하한다면, 그것은 약도(略圖)를 들고 지도만큼 자세하지 못하다고 푸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 이권우 기자